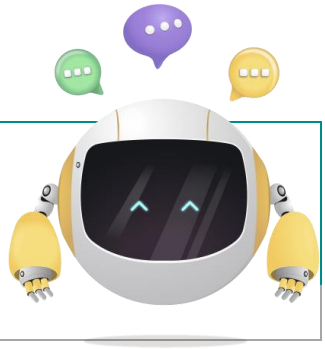
# Tech&Stock Weekly

2025.12.26



Analyst 김재임 jamie@hanafn.com | Analyst 김시현 sihyun_kim@hanafn.com | RA 송종원 1223sjw@hanafn.com

## 미국 원자력산업 업데이트

### 글로벌 전력기기/에너지: 미국 원자력 업데이트

**DOE는 HALEU 운송 패키지 개발 5개 기업 선정**

- 12월 8일 에너지부(DOE)는 HALEU 운송을 위한 패키지 개발을 위해 미국 기업 5곳을 선정, 1,100만 달러 지원 발표
- 1) NRC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지 설계 개발, 2) NRC 인증 위한 기존 설계 패키지 수정
- 패키지 설계 개발에 선정된 기업은 NAC International,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, Container Technologies Industries,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, Paragon D&E

**Urenco USA의 8.5% U-235 최초 생산 발표**

- 우라늄은 U-235의 농축도에 따라 4가지 0.7%/3-5%(LEU)/5-20%(HALEU)/90%이상(HEU)로 구분
- 12월 18일, Urenco USA는 미국 내 최초로 상업용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8.5% 농축도를 달성

**팰리세이드 재가동 일정 연기**

- Holtec은 미시간주에 위치한 팰리세이드 원전(PWR, 850MW)의 재가동 일정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연기 발표
- 발표된 연기 일정 사유는 보수 작업의 미완료
- 현재 미국 내 재가동을 발표한 대형 원전은 총 3가지. 팰리세이드(2026년 초), 스리마일 (2027년), 듀안아놀드(2029년 초)

### 미국 대형항공: 2026년에 대한 자신감

**델타항공: 2025년은 관세와 셧다운 영향으로 YoY flat, 2026년은 10% 이상 성장하며 예외적인 성장의 해 전망**

- 델타항공은 작년 공개한 로드맵에서 매년 10%의 세전 이익 성장을 전망했으나 FY2025년은 관세와 셧다운 등으로 인해 연간 세전이익 약 50억 달러로 FY2024년(52억 달러)과 유사할 것으로 언급
- 델타항공을 제외한 산업 전반은 40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합은 유의미한 수준
- FY2026년은 10% 이상 성장하며 예외적으로 높은 성장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. 매출 믹스의 다양성으로 경쟁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전망

**셧다운 후 예약은 10~20% 감소**

- 셧다운으로 인한 비용은 2억 달러, EPS 0.25달러로 추정
- 결근 관제사의 증가로 연방항공청은 11월 7일부터 사상 최초로 10%에 달하는 항공편의 감축과 국내 항공편 스케줄 재조정 명령
- 델타항공은 셧다운의 잔존 영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11월의 약세를 12에 만회할 것으로 기대

**2026년은 경험 소비 트렌드와 기업 출장 수요 지속 전망**

- 2026년에도 경험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. 델타항공의 핵심 고객층인 연소득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(미국 비중 약 40%)는 축적된 부를 어디서 쓰고싶냐는 질문에 1순위로 '여행'. MZ 세대는 스카이마일즈 프로그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원층으로 역시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특징

## 글로벌 전력기기/에너지

### 미국 원자력 업데이트

**DOE는 HALEU 운송 패키지 개발 5개 기업 선정**

- 12월 8일 에너지부(DOE)는 HALEU 운송을 위한 패키지 개발을 위해 미국 기업 5곳을 선정, 1,100만 달러 지원 발표
- 1) NRC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지 설계 개발, 2) NRC 인증 위한 기존 설계 패키지 수정
- 패키지 설계 개발에 선정된 기업은 NAC International,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, Container Technologies Industries,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, Paragon D&E
- 기존 패키지 수정에 선정된 기업은 NAC International이 복수 선정. 최대 2년의 프로젝트 기간
- 자국 내 원자로 개발사가 활용할 수 있는 HALEU 운송 역량을 구축하고 미국 원자력 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전망

**Urenco USA의 8.5% U-235 최초 생산 발표**

- 우라늄은 U-235의 농축도에 따라 4가지 0.7%/3-5%(LEU)/5-20%(HALEU)/90%이상(HEU)로 구분
- 12월 18일, Urenco USA는 미국 내 최초로 상업용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8.5% 농축도를 달성
- Urenco USA는 2024년 12월 NRC로부터 허용 농축 한도를 5.5%에서 10% 미만으로 상향하는 인허가 개정을 승인, 이후 2025년 9월 NRC는 운영 준비 검토(ORR) 과정 거쳐 생산 승인
- 상업용 생산은 2026년 중반부터 시작 계획
- SMR 상용화시 HALEU 중요성 높아지며 미국 내 밸류체인에 투자 지속 전망
- Urenco USA는 12월 16일부터 뉴멕시코에 위치한 캐스케이드에서 LEU 생산을 개시

**팰리세이드 재가동 일정 연기**

- Holtec은 미시간주에 위치한 팰리세이드 원전(PWR, 850MW)의 재가동 일정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연기 발표
- 발표된 연기 일정 사유는 보수 작업의 미완료
- 현재 미국 내 재가동을 발표한 대형 원전은 총 3가지. 팰리세이드(2026년 초), 스리마일 (2027년), 듀안아놀드(2029년 초)

## 미국 대형항공

### 2026년에 대한 자신감

**델타항공: 2025년은 관세와 셧다운 영향으로 YoY flat**

- 델타항공은 작년 공개한 로드맵에서 매년 10%의 세전 이익 성장을 전망했으나 FY2025년은 관세와 셧다운 등으로 인해 연간 세전이익 약 50억 달러로 FY2024년(52억 달러)과 유사할 것으로 언급
- 델타항공을 제외한 산업 전반은 40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합은 유의미한 수준
- FY2026년은 10% 이상 성장하며 예외적으로 높은 성장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. 매출 믹스의 다양성으로 경쟁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전망

**셧다운 후 예약은 10~20% 감소**

- 셧다운으로 인한 비용은 2억 달러, EPS 0.25달러로 추정
- 결근 관제사의 증가로 연방항공청은 11월 7일부터 사상 최초로 10%에 달하는 항공편의 감축과 국내 항공편 스케줄 재조정 명령
- 11월 7일 이후 약 10일간 예약은 즉각적으로 10~20% 감소. 특히 추수감사절(11월 27일) 이전에 마지막 출장 일정을 마치려 했던 비즈니스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약 2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애틀랜타 지역의 기상 교란 영향도 일부 포함
- 델타항공은 셧다운의 잔존 영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11월의 약세를 12에 만회할 것으로 기대

**2026년은 경험 소비 트렌드와 기업 출장 수요 지속 전망**

- 2026년에도 경험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. 델타항공의 핵심 고객층인 연소득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(미국 비중 약 40%)는 축적된 부를 어디서 쓰고싶냐는 질문에 1순위로 '여행'. MZ 세대는 스카이마일즈 프로그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원층으로 역시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특징
- 델타항공이 1년에 두 번 시행하는 기업 출장 서베이는 2026년가지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. Mid-single-digit 수준의 성장률이며 항공 운임에 대한 기대치는 3년만에 처음으로 전기 대비 증가. 기업 출장 시장에서 델타항공의 좌석 점유율은 20%를 조금 넘지만 수요는 30%를 훨씬 넘고 있음. 출장 수요는 지난 몇 년간 운임(P)는 강했지만 물량(Q)는 여전히 2019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으로 추가 성장의 여지
- 12월 9일 공개된 IATA(국제항공운송협회) 보고서에서는 2026년 RPK가 YoY +4.9% 성장할 것으로 전망. 지역별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RPK가 +7.3%로 성장을 주도할 것
- 2025년(+5.2%) 대비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 이유는 항공기와 노동력 등 공급측의 제약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항공사는 가격결정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2026년 실물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항공사 전반이 2026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공개하며 주가는 상승 탄력
- 2026년 1월 13일 예정된 델타항공 4QFY25 실적발표에서는 프리미엄 좌석 세분화 진척도와 FCF 35~40억 달러 달성 여부에 특히 주목할 필요

## AI 주간 업데이트

### 아마존, 오픈AI에 투자 논의 중

- 1) 아마존이 오픈AI에 대한 100억달러 이상 규모를 투자할 가능성, 2) 오픈AI가 아마존 자체 AI칩 사용 및 협업 계약을 논의 중인 상황. 세부 조건은 유동적이고 비공개 협상 단계로 변경 가능성 큼
-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해진 이유는 오픈AI가 10월 MS와 파트너십 조건 변경을 공식화하면서, MS의 컴퓨트 우선제공(ROFR) 성격이 약화되고 외부 자금조달과 서드파티 협업 자유도가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
- 아마존은 이미 앤스로픽에 최소 80억달러 투자한 바 있으나, 생성형 AI 노출 확대 목적에서 오픈AI까지 옵션 넓히는 그림으로 해석됨. 오픈AI는 최근 수개월간 대규모 인프라 커밋(총 1.4조달러 규모 언급)을 확대했고, 이미 11월에 AWS로부터 380억달러 규모 용량을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한 바 있음

### 엔비디아, AI 칩 스타트업 '그록(Groq)' 200억달러 규모 인수

-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칩 설계 스타트업 그록(Groq)의 핵심 자산과 기술에 약 200억달러(약 28~29조원)를 베팅하는 거래를 체결했다고 CNBC가 보도. 이번 거래는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반도체 관련 딜
- 인수 대상은 그록의 추론 기술 자산, 지적재산, 핵심 엔지니어링 인력이며, 초기 단계인 그록의 클라우드 사업(GroqCloud)은 제외되는 방향. 그록의 최고경영자 조너선 로스와 사장 써니 마드라 등 주요 경영진이 엔비디아로 합류하기로 했으며, 그록은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할 계획
- 그록은 2016년 설립 이후 대규모 언어 모델(LLM) 추론용 AI 가속기 칩(LPU) 개발에 주력해왔으며,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약 69억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음. 엔비디아는 이 기술 확보를 통해 AI 추론 시장에서 GPU 중심의 자사 전략을 보완하고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
- 해당 딜은 엔비디아가 전통적 GPU 기반 AI 트레이닝 대비 성장성이 높아진 AI 추론 인프라에 대한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, 반도체 경쟁 구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해석됨

### 알파벳, 데이터센터·에너지 인프라 기업 '인터섹트(Intersect)' 47억 5천만달러 인수

- 알파벳(구글의 모회사)이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제공업체 인터섹트 파워(Intersect Power)를 약 47억 5천만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. 이번 인수는 빠르게 확장 중인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및 인프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투자로 풀이
- 인터섹트는 데이터센터 캠퍼스용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, 알파벳은 이전에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한 바 있음. 인수 대상에는 다수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개발 자산과 에너지 솔루션 팀이 포함되며, 향후 알파벳과 협력해 신규 에너지 공급 확대 및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 확장에 주력할 계획. 다만 텍사스,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또는 건설 중인 일부 자산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며, 기존 투자자들의 영향 아래 별도 독립 회사 형태로 유지 예정
- 알파벳은 에너지 공급 다양화, 고급 에너지 기술(지열, 에너지 저장, 탄소포집 등) 투자 확대를 통해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. AI 데이터센터 전력 및 인프라가 경쟁 우위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, 해당 거래는 2026년 상반기 완료 예정

## 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, 김시현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- 당사는 2025년 12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, 김시현)는 2025년 12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